사람의 마음

존 A. 쇼트 지음 / 이 우 진 옮김

Korean Edition

사람의 마음

존 A. 쇼트 지음 / 이 우 진 옮김

Heart of God

Korean Edition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u>www.VM1.global</u>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차례

"사람의 마음"의 역사	5
서문·····	9
[그림 1] 자연적인 상태의 마음	
[그림 2] 죄를 깨달은 마음	37
[그림 3] 죄를 깨끗이 함-변화된 마음	43
[그림 4] 거절하는 마음	
[그림 5] 타락한 마음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2).



"사람의 마음"의 역사

본서의 초판은 1700년대 초엽 프랑스어로 간행된 듯합니다. 원작은 분실되었으나 1732년에 독일어 판이나왔으며 그 외 여러 나라 언어로 다수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중국어판은 1879년에 독일 선교사인 E. 파버 박사 (Dr. E. Faber)가 처음으로 간행해서 널리 유포하였고 그 번역본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계속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판이 요구되는 때가 되었으므로 중국어와 영어로 교정본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교정본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 가능하니 의사가 있으 면 이 출판사의 발행인인 C. B. R을 만나 보십시오.

본서의 목적은, 인류에게 있어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사람의 타락을 그림으로 여실히 보여주며 아 울러 그 그림들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최종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 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 치는 완전한 구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그림은 우리 사람의 최상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 일체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부여하시는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예레미야 17:9).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낫게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만물 중 가장 거짓됩니다. 인간은 악을 선이라 하며 선을 악이라 일컫습니다. 만사를 왜곡하며, 평화롭지 못한 자들에게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 외치고, 다른 사람을 속여 파멸로 이끕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 그대로 심히 부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블라니(Blamey)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도대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온통 꾸불꾸불하게 형성되어 있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규명해낼 자는 없다. 그 실체를 알아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벤슨).

"마음은 심지어 마음 자신에게마저 숨겨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마저 자기 마음이 어떠한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타락한 피조물에게 가장 고약한 대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이는 마음에 온갖 계교와 속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데도 마음의 주인은 자기 마음이 이러한 것들로 꿇어넘칠 때까지는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악들은인식되기 전에는 치료하기 위해 손대지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담 클라크).

"마음의 악들은 인식되기 전에는 치료하기 위해 손대지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이유 때문에 우리는 본서의 새로운 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다루는 일꾼들을 돕는 귀중한 도구로서,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벤슨은 말했습니다. "온통꾸불꾸불하게 형성되어 있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규명해낼 자는 없다." 하지만 예레미야 17장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 피며"(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심장"으로 되어 있음 - 역주). 주님 홀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시고 드러내실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의 숨겨진 동기를 판단할 권리를 지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나님은 진실로 크신 은혜를 베 푸사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짓됨 을 깨달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런 거짓된 마음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의 마음의 부패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데 본서가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오래 전부터 발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 책자가 독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칠 뿐 아니라 더욱 나아가 독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메시지를 담 대히 외치게 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 존 A 쇼트 중국의 홍콩에서, 2000년 4월

서문

제일 먼저,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거 짓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 다. 다시 말해 잘못되어 있는 비뚤어진 활을 가지고는 궁수가 제아무리 연습을 수없이 하고 탁월한 솜씨를 길러도 과녁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저희(이스라엘) 열조 같이 배반하고 궤사를 행하여 잘못된(deceitful, 한글 개역성경에는 '속이는'으로 되어 있음—역주) 활 같이 빗가서"(시편 78:57).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지만 한편으로는 거 짓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두 구절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된 사실을 선언하며, 후자 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신뢰할 경우에는 마음이 거짓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자기 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잠언 28:26)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든지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궤사한 혀(deceitful tong-ue)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시편 120:2).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 (deceitful meat)이니라"(잠언 23:3).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the kisses of an enemy are deceitful)"(잠언 27:6).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the bag of deceitful weights)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미가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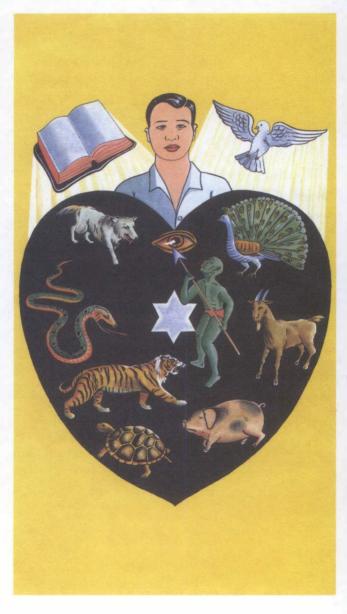
"너희는 유혹의 욕심(deceitful lusts)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에베소서 4: 22).

혀, 저울추, 욕심, 심지어 어떤 음식, 원수의 입맞춤

까지 모두 거짓되다고(deceitful)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만물 중 으뜸으로 거짓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관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보이신 및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바는 끊임없이 피를 공급하는 놀라운 꼬마 '엔진', 곧 몸 안의 심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장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기관입니다! 또한 심장은 쉴새 없이 몸의 각 부분에 골고루피를 보내주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리에게 중시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 부분은 심장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림 1] 자연적인 상태의 마음

[그림 l] **자연적인 상태의 마음**

마음의 바깥쪽

펼쳐진 책 - 성경 비둘기 - 성령님 사람과 그 마음

마음 안쪽의 내용물들을 탐색해보기 시작하면서 무 엇보다 마음 바깥쪽의 이 세 가지 귀중한 주제들을 주 목하십시오.

영혼의 귀중함 - 인간1)

책의 귀중함 -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귀중함 - 하나님의 영

여백은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공부해서 각 주 제마다 관련 성구들을 추가해 보십시오

펼쳐진 책

펼쳐진 책은 성경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 킵니다. 이 놀라운 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펼쳐져 있 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류 스스로 죄, 자아, 자연적인 마음과 힘겹게 싸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 는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 을 완전히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렇듯 그분의 기 록된 말씀을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심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브리서 1:1,2).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비춰서 우리로 그 참된 상태를 바로 보게 합니 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동일한 성경은 우리의 죄와 무 력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까지 제시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7).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베드로전서 1: 25).

비둘기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 상징은 우리로 성령님의 놀라운 순결함과 온화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마태복음 3:16),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시며, 아버지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 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 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 니라"(사도행전 1:4,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사람들 모두에게 죄를 깨닫게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한복음 16:8).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한복음 16:13).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요한복음 16:15).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린도전서 2:14).

하나님은 은혜로 그분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 셨으며, 그 목적은 우리가 성령님의 귀중한 도우심을 받아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복음 8:32).

사람과 그 마음

마음에 관한 이런 그림들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 됩니다. 이 그림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며, 모 든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증거

하지도 않는 닫혀진 입을 보십시오. 이는 어두움과 무지의 삶입니다. 넓은 길로 내려가 파멸과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는 자연적인 마음의 갖가지 욕심과 정욕에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안쪽

이제 사람의 마음 안쪽의 내용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일곱 가지 피조물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각각은 인간 본성의 몇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중국에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을 사람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거짓되다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거짓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일곱 가지 피조물을 선택해보았습니다!

1. 공작

이 아름다운 피조물, 특히 수컷은 교만의 상징으로

18 · 사람의 마음

매우 유명합니다. 속담 중에도 "공작처럼 몹시 우쭐거린다"(As proud as a peacock)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중요한 죄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교만은 탐심, 정욕, 분노, 폭식, 시기, 나태 따위의 치명적인 죄들 중에서도 선봉장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은 공작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깃털을 주셨고 이러한 깃털들은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에 인류 역사를 내려오면서 내내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공작을 관찰하면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그 멋진 깃털을 발견합니다.

인류도 얼마나 그와 같은지요! 사업에서 수완을 보이는 자들, 혹은 좀더 교육을 받은 자들, 혹은 부자가된 자들이 내보이는 공통적인 현상도 그들이 매우 교만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녀들이 성취한 일들을 과시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들의의복과 보석류를 무척이나 뽐냅니다.

사람은 너나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만의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미워한다고 명백히 말씀하신 죄입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오바댜 3절).

교만에 대해 다음의 거룩한 성경 구절들은 첫째 되고 현저한 죄로 지목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잠언 6:16.17).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니"(잠언 16:5).

역기서 미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 하시고 혐오하시며 역겨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언 13:10).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잠언 28:25).

교만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강탈해갑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이사야 57:15).

우리가 자신의 교만의 최, 이기심의 최, 자기 의지의 죄를 생각하며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피로써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십니다(욥기 33:17).

"모든 죄, 특히 교만의 죄는 지상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기원한 죄가 아니었으며, 슬프게도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단은 루시퍼로 알려졌는데, 그는 '지혜가 충족하였고'(에스겔 28:12)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존재였으며 모든 피조된 지성 중 가장 높은 지성을 소유했습니다." (존 필립스).

루시퍼의 마음에서 기원한 이 교만의 죄에 대해 성

경은 그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산 위에 좌정하리라"(이사야 14:13).

그리고 이제는 동일한 교만이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 인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6:16,17).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야고보서 4:6).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마가복 음 7:21.22).

2. 염소

왜 염소를 언급하는지 묻고 싶으시겠죠? 무리 지어

22 · 사람의 마음

살아가는 염소는 욕심, 독립심, 그리고 지독한 악취로 유명합니다. 목자를 알아보고 기꺼이 그를 따르는 양 과는 달리 염소는 매우 고집이 세서 자기가 결정을 내 리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의 길로 가버립니다. (당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영혼을 거슬려 싸우며 죄와 죽음을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마가복음 4:19).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 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11).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4,15).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

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7,28).

3. 돼지

돼지는 탐욕으로 유명하며 오물에 뒹구는 것을 더좋아하는 매우 천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먹는 것을 관찰하노라면 엄청난 욕심이 느껴집니다.

그와 같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도록 매우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로 자기 배만을 위해살도록 만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빌립보서 3:18,19).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

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로마서 16:18).

돼지는 오물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돼지를 씻겨 깨끗한 환경으로 들여놓아 보십시오. 곧바로 뒹굴만한 오물을 찾아내 거기에서 뒹굽니다. 반대로 양 혹은 새 끼양은 늘 마르고 청결한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음담패설을 즐겨하고, 악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불결한 언어와 삶을 피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 게 경고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29).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 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에베소서 5:4).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더러움은 말과 행동을 통해

표출되며, 그렇게 내뱉은 말들과 행동들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태복음 12:34~37).

4. 늑대

늑대는 탐욕스럽습니다. 그것들은 흔히 낮에 나타나지 않으며 어두움을 틈타 밤의 엄호를 받고 몰래 집과 농장에 접근해 닭과 다른 조그만 가축들을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꼬마 아이마저 낚아채 간다고 합니다. 늑대들은 정말로 탐욕스러우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음흉하고 교활한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왜 창문마다 쇠창살을 하고, 각종 잠금 장

치로 문단속을 해야 합니까? 낮에도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욕스런 강도가들어와 훔쳐갈까 봐 염려한 까닭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명백히 탐심을 죄로 지목하셨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7).

신약 성경도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로새서 3:5).

주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어 자신을 숨기고 접근하는 늑대들, 곧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건 전하고 분명하며 특별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태복음 7:15).

5. 뱀

이 피조물은 다리와 팔이 없으므로 매우 무력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뱀이 지닌 특징

적인 속임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의 이빨로 물어 독을 집어넣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들을 파멸시키는 정말로 위험한 수법입니다. 희생자들은 으레 그러한 속임수가 있으리라 예측하지 못하고 결국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품질이 형편없으면서도 그럴듯한 광고로속이고, 양을속이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 여러 방법을 궁리합니다. (이를테면, 소에 물을 많이 먹여 무게가더 나가게 하여 팔고, 명주 1야드는 1.5야드로 늘려서판매합니다.)

중국 속담에 한 탐욕스런 사기꾼 푸줏간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양의 머리고기라고 밖에 내걸고 파는데 사실은 개고기였습니다."

잠언에는, 술에 만취했을 때 마치 독사가 쏘는 듯 술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 며"(잠언 23:32). 사망 또한 속이는 성격의 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숨겨진 독은 바로 죄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고린도전서 15:55,56).

6. 호랑이

당신은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사나운 암호랑이 같아요!" 그러 나 통제되지 않은 기질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 니다! 남자들 역시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움과 잔인성이 온 세계에 만연합니다.

호랑이는 먹이를 사냥할 때의 냉혹함으로 유명하며 피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그것들이 일으키는 고통과 죽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움은 마음 속의 호랑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 그러한 증오심을 살인처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

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 가 아는 바라"(요한일서 3:15).

우리 모두는 자기의 성질이 돌연 솟구쳐 올라 다른 사람들을 두렴고 무섭게 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렇게 성난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 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에베소서 4: 31).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골로새서 3: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 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태복음 5:22).

7. 거북이

이 피조물은 특별히 게으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곤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할 때 거북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욱 격려를 해주고 더욱 자극을 줄수록 이것은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합니다.

닫혀진 천국 문 밖에서 자신들이 거절된 이유가 구 원과 생명의 열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으 른 무관심 때문이었음을 깨달을 자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매력 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책 임감도 없고 의지할만하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등한히 합니다.

주 예수님은 게으른 자들을 "악하고 게으른 자들"로 묘사하셨고, 따라서 게으름은 엄중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네가 알았느냐"(마태복음 25:26).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

람은 주릴 것이니라"(잠언 19:15).

8. 눈과 마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하겠느뇨"(마태복음 6:22,23).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눈을 멀게 하여('마음 눈을 멀게 하여'가 한글 개역성경 에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로 나와 있음-역주) 그리스 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 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린도후서 4:4).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요한계시록 3: 17). 별은 사람의 양심을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므로 인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었는데 이것이 양심 이며, 사람은 누구든지 이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깨 닫습니다. (깨달은 선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만 말입니다!)

별은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어주며 찌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6,17).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그도 먹은지라"(창세기 3:6).

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완전한 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과 사고가 도덕 원칙에 지배받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행하나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확연히 구별해줍니다.

그림에서 양심을 가리키는 별이 마음 속의 죄로 인해 밝거나 선명하지 못함을 눈여겨보십시오. 슬픈 일이지만 이는 마약 남용과 기타 이유 탓입니다.

고통을 가해 몸의 신경조직을 무감각하게 하고 둔하게 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어떤 이는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위를 굳어버린 두꺼운 피부로 걷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췸을 받지 못한 양심, 혹은 그 빛을 거절한 양심 역시 이처럼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지며 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양심은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디모데전서 4:2).

☆★☆★☆

지금까지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의 마음에 대한 첫번째 그림에서 마음의 안쪽이 온통 어두우며 선함이 존재치 않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며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밝게 비춥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 근처를 배회하시나 사람의 허락이 주어져야 그 어두운 마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림에서, 유용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어둡기만 한 사람의 자연적인 마음 바깥쪽에 자리하고 계심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음"(에베 소서 2:1)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남녀노소 모두 출생 시부터 처하게 된 이런 자연적인 상태는 위험한데, 이는 자연적인 마음의 죄 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죄인들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태복음 7:1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그림 2] **죄를 깨달은 마음**

[그림 2]가 [그림 1]과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면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들도 주목하십시오.

자연적인 마음의 거짓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의 그림에서는 피조물들이 마음을 어지럽힌 반면, 이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고 죄악된 마음을 밝게 비추어줍니다. 말씀의 빛이 마음 속으로들어가는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u>므로</u>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시편 119:130).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이 책자와 같은 기독교에 관한소책자의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우연한 기회에 들은후 뇌리 속에 남아 있는 성경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의 양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그림 2] 죄를 깨달은 마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꽃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뚫고 안으로 들어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쪽의 불꽃을 보십시오.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가운데 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20).

"그(성령)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한복음 16:8).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예수 그리스도)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한복음 3:19,20).

하지만 많은 이들이 커다란 위험에 빠지는 것은 바

로 이 때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은 불행을 느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은 비참함까지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죄의 삯은 사망이요"(로마서 6:23)

만일 이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받아들이고 깨어난 양심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속적인 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그저 죄를 깨닫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에 머물 뿐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누가복음 11:21,22).

우리 마음과 영혼의 대적인 힘센 자가 자기의 궁전

과 소유물을 평화롭게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죄를 깨달은 마음은 대개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를 평화롭게 내버려두세요." "당신은 저의 평화를 어지럽히는군요." 하지만 그러한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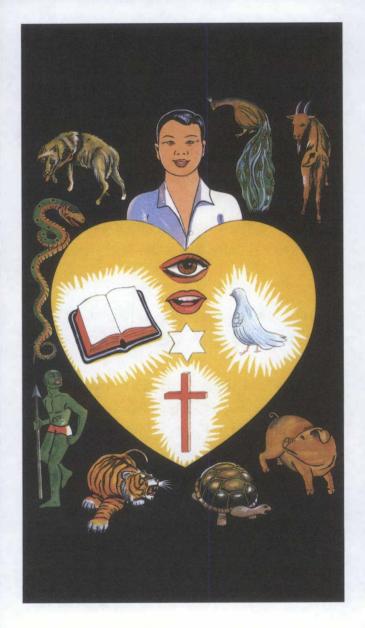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예레미야 6:14).

참되고 지속되는 평화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 해 그리스도 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창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로새서 1:20).

"피 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22).



[그림 3] 변화된 마음

[그림 3] **죄를 깨끗이 함 - 변화된 마음**

이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진실로 믿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비둘기(성령님)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야고보서 1:21).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베드로전서 1:23).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사도행전 26:18).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

[그림 3] 죄를 깨끗이 함-변화된 마음 • 43

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베드로전서 2:24).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5.6).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십자가와 보혈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믿어진 바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 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저가 빛 기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7).

눈을 주목하십시오. 죄를 깨끗이 한 사람은 더 이상 사단에 의해 눈이 먼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 눈이 밝아 졌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18).

육체의 눈이 회복됨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훨 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마태복음 9:27~31; 20:30~34; 요한복음 9:1~11).

양심을 나타내는 별을 주목하십시오. 이 양심이 한때는 죄에게 속아 무디어지고 굳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

감해졌으며 순수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사도행전 24:16).

열려진 입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는 누구든지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파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 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로마서 10:9).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 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마가복음 5:19).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브리서 13:15).



[그림 4] 거절하는 마음

[그림 4]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의 빛과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을 거절하는 상태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급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하는 아드님(예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이 복음에 대해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 이 즐비함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 습은 이미 자연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처음의 그림에 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4]와 같은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비 극입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 이런 상태 그대로 영원에 들어간다면 그는 영영 잃어버린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그림에서 각 피조물들이 마귀에 의해 더욱 더 활발 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도 주목하십시오.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은 자는 이 세상 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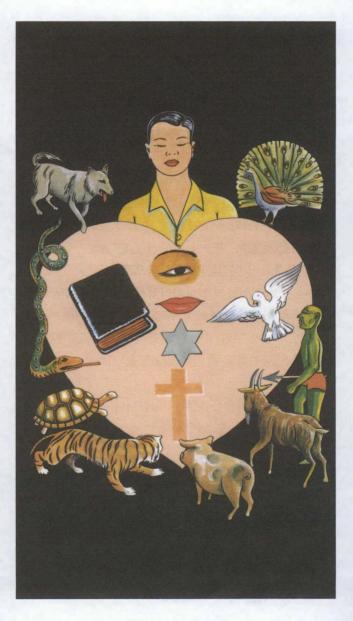
닫혀진 책으로부터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가엾은 자라도 돕고자 준비하고 계신 성령님은 거절당하시고 슬픔 속에 한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로마서 1:24).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또한 이렇게 되리라"(마태복음 12:43~45).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 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 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 이니라 하니라"(사도행전 17:30,31).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 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로마서 2:5).



[그림 5] 타락한 마음

[그림 5] **타락한 마음**

이 마음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임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상반된 삶을 살므로 이 마음 은 악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되돌아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그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때는 바로 죄에게 기회를 주는 순간이며, 그렇게 되면 육신은 전형적인 특징대로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속이며 망쳐놓을 기회를 노립니다.

그림 속의 입술은 닫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은 닫혀져 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여 마음 속에 간직해두었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소홀히 취급 됩니다.

비둘기인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그런 마음 속에서 쉬

지 못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분명한 개념이 흐려졌고, 그런 까닭에 그에게 십자가라는 주제가 희미해졌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다시 육이 일어 나 자연적인 본능으로 가득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에 굴복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양심을 주목하십시오.

"선한 양심", 즉 성경에 의해 이끌림 받는 양심을 가 .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양심은 순수하고 깨끗하 며 민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잘 닦아놓 은 금속 거울처럼 되어 유혹하는 자의 이주 조그마한 입김에도 즉각 흐려져 신호를 보냅니다.

믿는 자는 잘 새겨들으십시오! 만일 죄를 범하면 즉시 자백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 케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9).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한일서 2:1,2).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 노니"(히브리서 13:18).

유혹과 죄가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다른 새로운 힘과 생명을 더하셔서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 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한복 음 10:27~29).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 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 전서 10:13).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 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 였음이니라"(요한복음 15:15).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 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 에서 옮기리라"(요한계시록 2:4,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 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 라"(요한계시록 3:15).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라디아서 6:14).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27).

"네 마음도 진실하나"(열왕기하 10:15)

사람에게 중심이 되는 마음이 거짓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록 마음은 부패했지만 거짓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되 지 말도록 말씀하시며, 우리의 거짓된 마음은 정말 그 렇게 변화되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하 며 열매맺는 마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세기 6:5: 창세기 8:21도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홍수 직전과 직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21).

마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10: 8,9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 직하여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으 며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누가복음 8: 15).

진리에 순종하면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마음)을 깨끗 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베드로전서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야고보 서 1:22,26).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랑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

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다니엘 4:30).

그러한 교만한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 님은 그를 낮추셔서 들짐승과 같이 되게 하고 그로 하 여금 들의 풀을 먹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칠 년 후에 겸손해진 느부갓네살 왕이 선 언한 다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다니엘 4:35).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궤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베드로전서 2:1).

"저(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 궤사(속임)도 없으 시며"(베드로전서 2:22).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고"(베드로전서 3:10).

율법 아래의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겸손케 하셨지만 신약 시대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스 스로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 리라"(야고보서 4:10).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속은 가운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에 좌정해 계시는지요?

결론

어떤 그림이 당신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분의 구원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홀로 당신에게 새로 운 마음을 주시고 죄를 깨끗케 하시며 그분께로 돌아 서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한 복음 6:37).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잠언 28:26).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

자신과 제 마음을 신뢰할 수 없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마태복음 11:28).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잠언 3:5) 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명료하고 힘있고 축복된 대답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시편 86: 11.12).